



교회를 다니지 않는 미국인(Unchurched)의 삶과 신앙 인식  
언처치드, '예배 초대'보다 '지역 봉사(행사)' 통한  
교회 초대가 더 효과적!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 ① 한국인의 입양 인식
- ② 가구·연령대별 평균 순자산
- ③ 목회자 은퇴 후 주일 예배 처소

2025. 11. 4.

목회데이터연구소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 언처치드, '예배 초대'보다 '지역 봉사(행사)' 통한 교회 초대가 더 효과적!

미국의 목회 전문 조사기관인 라이프웨이리서치가 발표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Unchurched Report, 2016)은 6개월간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을 언처치드(Unchurched)로 정의한다. 본 연구는 빌리그래함 전도센터와 협력하여 수행된 전도 관련 조사로, 비록 조사 시점은 오래되었으나 오늘 교회가 여전히 부딪히고 있는 주제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과 상태에 있는가'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넘버즈에서 다루고자 한다.

조사결과, 언처치드 75%는 과거 정기적으로 교회에 다닌 경험이 있었다. 또한 언처치드의 절반 가까이는 신앙 대화 요청 시 기꺼이 응하는 태도를 보였고, 교회 초대의 문을 여는 계기로는 예배보다 지역 봉사(행사) 같은 공공선 기반 접촉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넘버즈 309호>에서는 언처치드의 인식과 특성을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 한국교회가 교회 밖에 있는 이들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통찰을 얻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 일러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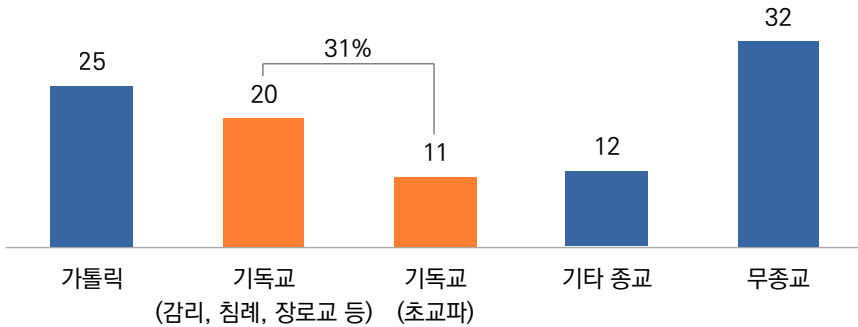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01

## [언처치드(Unchurched) 일반 특성] 교회에 다니지 않는 미국인 31%가 선호 종교로 기독교 선택!

-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지난 6개월간 예배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현재 자신의 종교 선호도를 묻은 결과, '가톨릭'(25%)이 가장 높고, 이어서 '기독교 전통 교단(감리, 침례, 장로교 등)'이 20%, '기독교(초교파)'(11%) 순으로 나타났다.
- 반면 자신을 무종교인으로 간주하는 비율은 32%로 3명 중 1명꼴이었다.

[그림] 교회에 다니지 않는 미국인의 종교 선호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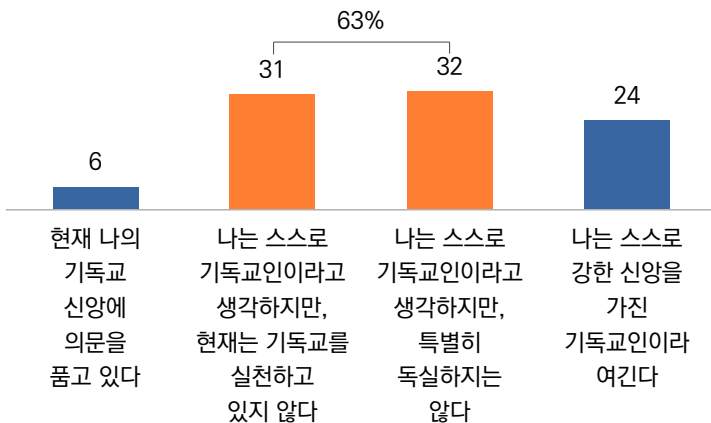


※출처 : 라이프웨이 리서치,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리포트(Unchurched Report), 2016.06. (지난 6개월간 종교 기념일(예: 부활절)이나 특별한 행사(예: 결혼식, 장례식)를 제외하고는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18세 이상 미국인 2,000명, 온라인 조사, 2016.05.23.~06.01.)  
 Note) 교회에 다니지 않는 미국인은 이하 '언처치드(Unchurched)'로 용어 통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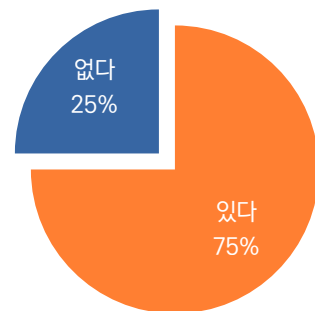
## 언처치드 75%, 한때 교회 정기 출석자였다

- 교회에 다니지 않지만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인식하는 이들 중 63%는 '비실천적·비독실 신앙' 범주에 속했다. 언처치드 3명 중 2명 가까이가 기독교 정체성은 유지하되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 그룹이었다.
- 한편, 언처치드 4명 중 3명(75%)은 과거 정기적으로 교회에 다닌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언처치드(Unchurched) 그룹이 처음부터 교회 밖에만 있었던 집단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현재 자신의 신앙 상태\* ('자신의 종교를 기독교로 선호하는' 교회 비출석 미국인, %)



[그림]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한 경험 (교회 비출석 미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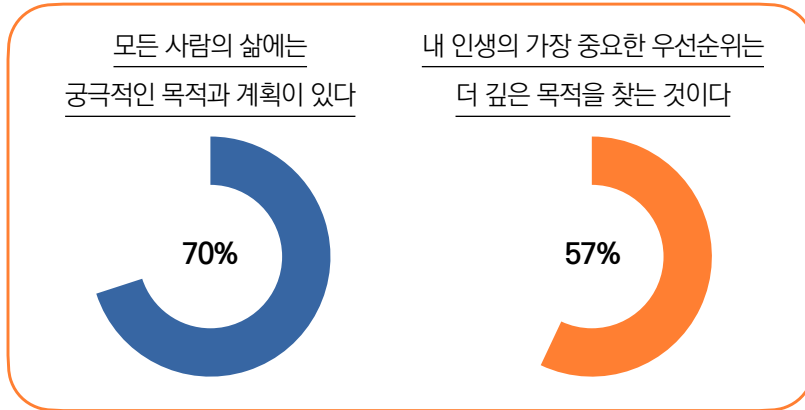


※출처 : 라이프웨이 리서치,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리포트(Unchurched Report), 2016.06. (지난 6개월간 종교 기념일(예: 부활절)이나 특별한 행사(예: 결혼식, 장례식)를 제외하고는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18세 이상 미국인 2,000명, 온라인 조사, 2016.05.23.~06.01.)  
 \*확실하지 않음(Not sure) 응답은 제외

## 언처치드의 57%, 교회 밖에 있지만 스스로 삶의 의미와 목적 탐색 중!

-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언처치드(Unchurched) 10명 중 7명은 '모든 사람의 삶에는 궁극적인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또한, '자신의 삶에서 더 깊은 목적을 찾는 것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둔 이들도 57%에 달했다.
- 이와 같은 데이터는 언처치드가 교회 혹은 종교 외부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향한 스스로의 탐색은 여전히 진행 중임을 보여준다.

[그림] 삶의 의미/목적 인식 (교회 비출석 미국인, '매우+약간 동의함'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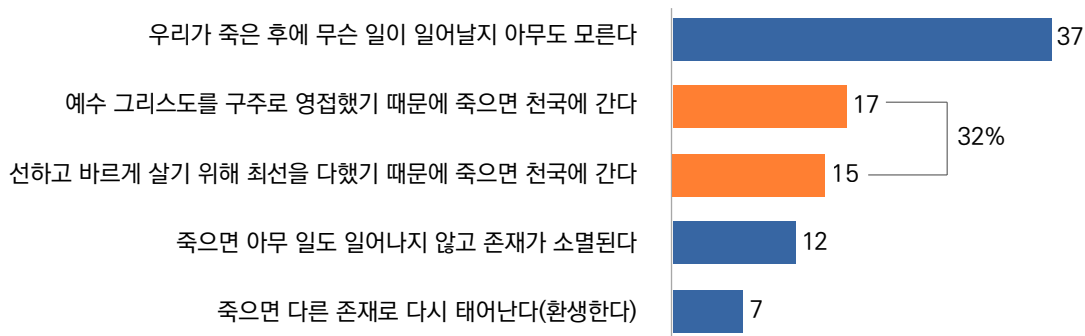
※출처 : 라이프웨이 리서치,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리포트(Unchurched Report), 2016.06. (지난 6개월간 종교 기념일(예: 부활절)이나 특별한 행사(예: 결혼식, 장례식)를 제외하고는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18세 이상 미국인 2,000명, 온라인 조사, 2016.05.23.-06.01.)

\*4점 척도

## 언처치드 3명 중 1명, '죽음 이후 천국 간다'!

- 사후세계에 대한 인식을 물었다. 언처치드(Unchurched) 중 가장 많은 응답은 '우리가 죽은 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37%)는 인식이었다.
- 한편 '천국에 간다'는 인식도 나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17%)과 '선하게 살기 위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15%)로 인식이 갈렸다. 전체적으로 언처치드의 1/3(32%)이 사후에 천국에 간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 이는 언처치드 인식에서 기독교적 요소뿐 아니라 비기독교적 인식도 혼재하는 '혼합적' 구조가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사후세계 인식 (교회 비출석 미국인, 상위 5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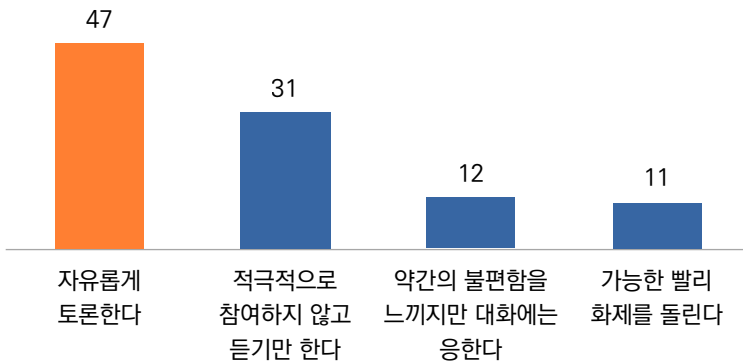
※출처 : 라이프웨이 리서치,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리포트(Unchurched Report), 2016.06. (지난 6개월간 종교 기념일(예: 부활절)이나 특별한 행사(예: 결혼식, 장례식)를 제외하고는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18세 이상 미국인 2,000명, 온라인 조사, 2016.05.23.-06.01.)

# 02

## [신앙·교회·기독교인에 대한 인식] 종교 관련 대화 요청시, 언처치드 절반(47%)은 ‘자유롭게 토론’!

- 종교에 대한 대화 요청을 받았을 때, 언처치드(Unchurched)의 절반가량(47%)은 ‘자유롭게 토론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31%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지만 듣기는 한다’고 답해, 전체적으로 수용적 태도가 회피보다는 우세했다.
- 이는 언처치드가 반응 방식의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신앙적 대화에 열려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종교에 대한 대화 요청 시 반응 (교회 비출석 미국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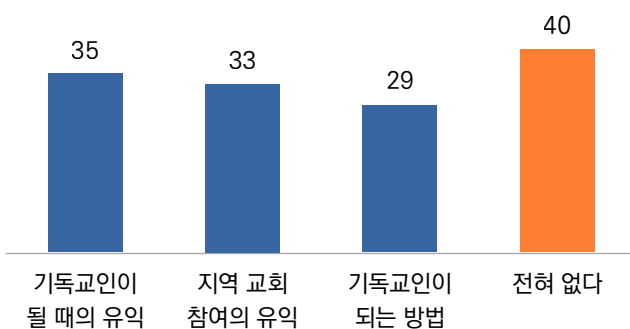


※출처 : 라이프웨이 리서치,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리포트(Unchurched Report), 2016.06. (지난 6개월간 종교 기념일(예: 부활절)이나 특별한 행사(예: 결혼식, 장례식)를 제외하고는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18세 이상 미국인 2,000명, 온라인 조사, 2016.05.23.-06.01.)

## 언처치드 40%, 기독교인으로부터 신앙적 대화(교회 초청) 경험 ‘전혀 없다’!

- 기독교인으로부터 1:1로 신앙적 대화 또는 교회 초청을 받았는지 묻은 결과, 언처치드(Unchurched)의 40%는 ‘그런 경험이 전혀 없다’고 응답했다. 이는 언처치드의 상당수가 기독교인으로부터 신앙적 대화 접촉 경험조차 없음을 보여준다.
- 반면 ‘기독교인이 되는 유익’(35%), ‘지역 교회 참여의 유익’(33%)을 개인적으로 들어본 경험이 있는 비율은 각각 3명 중 1명꼴이었다.

[그림] 기독교인이 개인적으로(1:1로) 신앙을 공유한 경험 여부 (교회 비출석 미국인, 중복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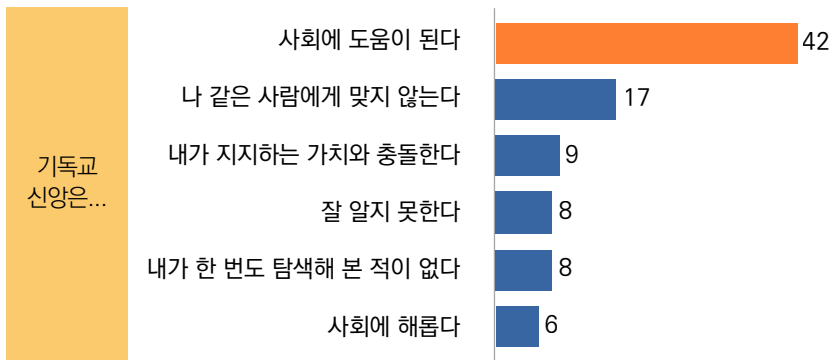


※출처 : 라이프웨이 리서치,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리포트(Unchurched Report), 2016.06. (지난 6개월간 종교 기념일(예: 부활절)이나 특별한 행사(예: 결혼식, 장례식)를 제외하고는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18세 이상 미국인 2,000명, 온라인 조사, 2016.05.23.-06.01.)

## 언처치드 42%, '기독교는 사회에 도움이 된다'!

- 언처치드(Unchurched)에게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인식을 묻은 결과, '기독교는 사회에 도움이 된다'가 42%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반면 '사회에 해롭다'는 응답은 6%에 그쳐, 기독교에 대한 반감은 소수에 그쳤다.
- 한편 '나에게 맞지 않는다'(17%), '잘 알지 못한다/탐색해 본 적 없다'(각 8%)는 응답도 나타나, 언처치드의 기독교 인식은 '거부'보다는 '거리감과 무관심'이 더 큰 상태임을 보여준다.

[그림]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인식\* (교회 비출석 미국인, 중복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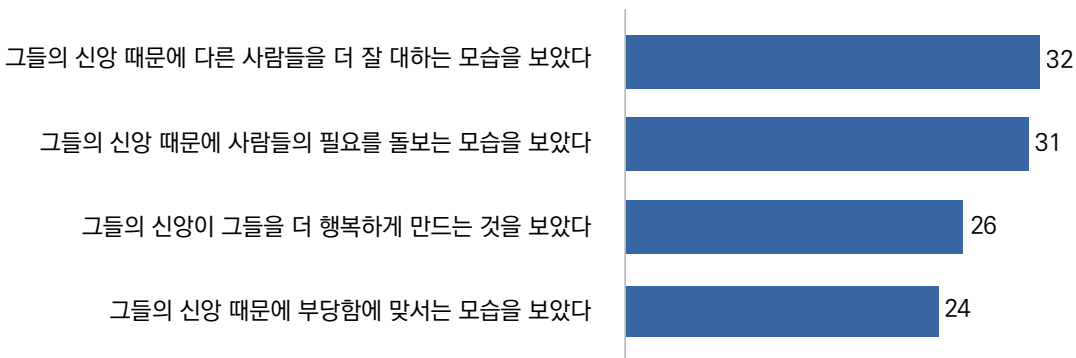


※출처 : 라이프웨이 리서치,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리포트(Unchurched Report), 2016.06. (지난 6개월간 종교 기념일(예: 부활절)이나 특별한 행사(예: 결혼식, 장례식)를 제외하고는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18세 이상 미국인 2,000명, 온라인 조사, 2016.05.23.~06.01.)  
\*해당없음, 잘 모르겠음 응답은 제외

## 언처치드의 기독교 관심을 촉발하는 계기, '신앙이 삶으로 드러날 때'!

- 언처치드(Unchurched)들이 기독교인의 말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신앙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을 더 잘 대하고'(32%), '사람들의 필요를 돌보며'(31%), '부당함에 맞서는 행동'(24%)을 본 경험이 기독교에 대해 언처치드 관심의 문을 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앙이 그들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모습'(26%)도 언처치드의 마음을 움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전도의 출발점이 단순 메시지 전달보다, 삶에서 드러나는 신앙적 모습에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기독교인의 말에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 (교회 비출석 미국인, 중복응답, 상위 4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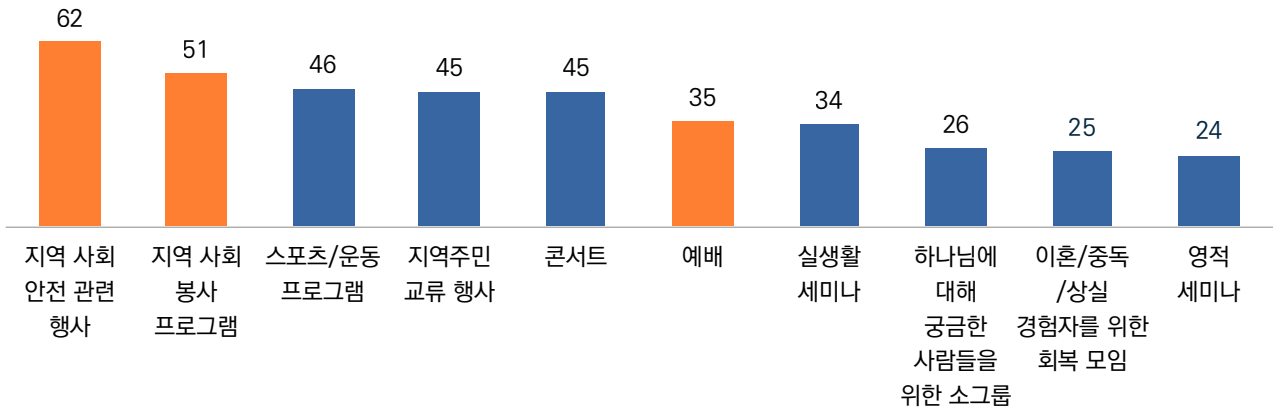
※출처 : 라이프웨이 리서치,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리포트(Unchurched Report), 2016.06. (지난 6개월간 종교 기념일(예: 부활절)이나 특별한 행사(예: 결혼식, 장례식)를 제외하고는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18세 이상 미국인 2,000명, 온라인 조사, 2016.05.23.~06.01.)

# 03

## [교회로 향하게 만드는 계기와 전략] '예배 초대'보다 '지역 봉사(행사)' 통한 교회 초대가 더 효과적

- 이번에는 지인이 지역 교회가 주최하는 활동에 초대할 경우, 언처치드의 참석 의향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본다.
- 가장 참석 가능성이 높은 것은 '지역 행사'(62%)와 '사회 봉사'(51%) 같은 공익 기반 활동이었다. 반면 예배(35%)· 신앙 소그룹(26%)· 영적 세미나(24%) 등 직접적인 종교 활동은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을 보였다. 이는 종교적 메시지에서보다 지역 사회를 위한 실천 중심의 접근이 초대의 문을 여는 데 더 효과적임을 말해준다.

[그림] 교회 주최 활동에 초대받을 경우 참석 의향 (교회 비출석 미국인, '매우+약간 참석할 가능성 있음'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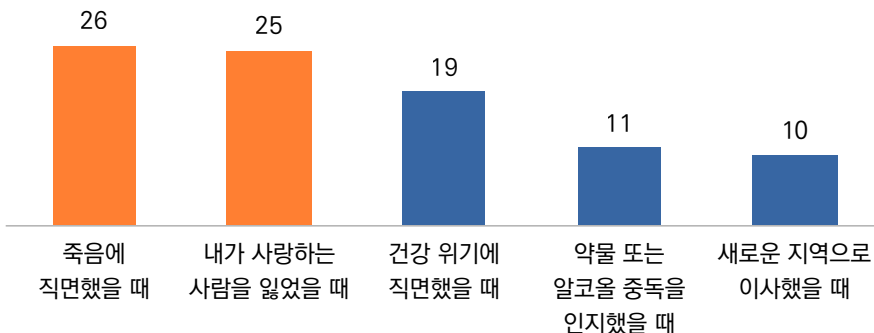


※출처 : 라이프웨이 리서치,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리포트(Unchurched Report), 2016.06. (지난 6개월간 종교 기념일(예: 부활절)이나 특별한 행사(예: 결혼식, 장례식)를 제외하고는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18세 이상 미국인 2,000명, 온라인 조사, 2016.05.23.-06.01.)  
\*4점 척도

## 언처치드, '죽음/상실'의 위기에서 교회의 도움 요청할 가능성 높다!

- 다양한 상황을 제시하고, 이 중 교회에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을 높이는 삶의 경험을 선택하도록 한 결과, 언처치드들은 '죽음과 상실'과 관련된 극단적 위기 상황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 구체적으로 '죽음에 직면했을 때'(26%)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25%)를 가장 많이 꼽아, 이들이 삶의 근본적인 의미나 인간 존재의 유한성에 대한 질문에 직면했을 때 교회의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어 '건강 위기에 직면했을 때'(19%), '약물 또는 알코올 중독을 인지했을 때'(11%)가 뒤를 이었다.

[그림] 교회에 도움을 청할 가능성을 높이는 인생 경험 (교회 비출석 미국인, 복수응답, 상위 5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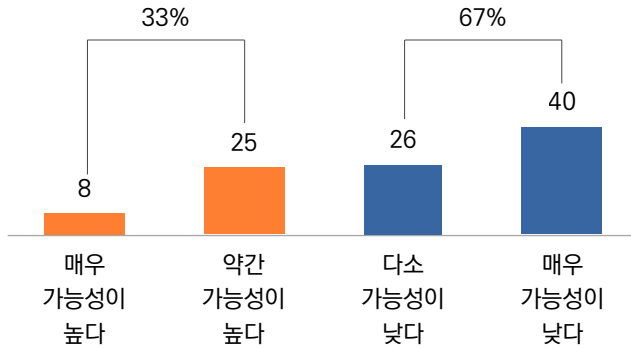


※출처 : 라이프웨이 리서치,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리포트(Unchurched Report), 2016.06. (지난 6개월간 종교 기념일(예: 부활절)이나 특별한 행사(예: 결혼식, 장례식)를 제외하고는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18세 이상 미국인 2,000명, 온라인 조사, 2016.05.23.-06.01.)

## 언처치드 3명 중 1명(33%), 향후 교회 정기 출석 ‘가능성 높다’!

- 앞으로 정기적으로 교회 출석할 가능성을 묻은 결과, 언처치드(Unchurched) 3명 중 1명꼴인 33%가 ‘가능성 높다’고 응답했다. 이는 교회의 꾸준한 관계 맺기와 초대가 유효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다만, 응답자의 2/3에 해당하는 67%는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해, 교회 출석에 대한 거부감과 무관심을 동시에 드러냈다.

[그림] 향후 정기적 교회 출석 가능성 (교회 비출석 미국인, %)



※출처 : 라이프웨이 리서치,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리포트(Unchurched Report), 2016.06. (지난 6개월간 종교 기념일(예: 부활절)이나 특별한 행사(예: 결혼식, 장례식)를 제외하고는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18세 이상 미국인 2,000명, 온라인 조사, 2016.05.23.~06.01.)

## 이번호 요약

### 1. 언처치드 75%, 한때 교회 정기 출석자였다!

-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미국인(언처치드) 4명 중 3명(75%)은 과거 정기적으로 교회에 다닌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처음부터 교회 밖에만 있었던 집단이 아님을 알 수 있다.

### 2. '예배 초대'보다 '지역 봉사(행사)' 통한 교회 초대가 더 효과적!

- 지인이 지역 교회가 주최하는 봉사활동(행사)에 초대할 경우, 언처치드의 참석 의향이 가장 높은 것은 '지역민을 위한 행사'(62%)와 '사회 봉사'(51%) 같은 공익 기반 활동이었다. 반면 예배(35%) 등 종교색이 직접적인 초대는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 3. 언처치드, '죽음/상실'의 위기에서 교회의 도움 구할 가능성 높다!

- 교회에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을 높이는 삶의 경험으로는 '죽음과 상실'과 관련된 극단적 위기 상황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죽음에 직면했을 때'(26%)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25%)를 가장 많이 꼽았다.

##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적] 통하는 전도 (문승진 저/도마의길)

## 관련 성경 구절

...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마태복음 25장 40절b)

## 목회 적용점

이번 언처치드 분석 결과는 언처치드의 상당수(75%)가 처음부터 신앙이 없던 외부인이 아니라, 과거 교회 공동체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임을 보여준다. 이들은 교회에 대해 완전히 부정적이기보다는, 예배 중심의 직접적 초대에는 낮은 호응을 보이나, 교회의 '지역민을 위한 행사'나 '사회 봉사' 같은 공익 활동을 통한 접촉에는 높은 참여 의사를 보인다.

이는 교회가 '잃은 양'을 되찾고 '외부인'에게 다가가기 위해 전략적 전환을 해야 함을 시사한다. 교회의 역할은 단순한 종교 시설을 넘어, 지역 사회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이웃을 돌보는 안전망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목회 현장에서의 다음의 두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삶의 위기'에 선제적으로 반응하는 치유 공동체 구축이다. 언처치드가 교회를 찾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순간은 '죽음, 상실, 건강 위기'와 같은 삶의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했을 때이다. 교회는 지역사회의 장례 지원, 건강 상담, 중독 치유 등 위기 개입 사역의 전문성을 높여, 그들의 고통에 신앙적 위로와 실질적 도움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관계와 봉사'를 매개로 한 접촉 사역 강화이다. 직접적인 예배 초대를 고집하기보다, 지역 사회가 인정하는 실질적인 봉사 활동 또는 지역민들을 위한 행사를 통해 언처치드와의 신뢰 관계를 먼저 형성해야 한다. '봉사는 곧 복음의 행위적 표현이기 때문이다.'

##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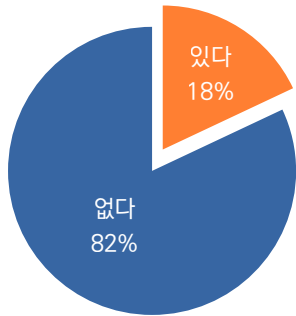
1. 한국인의 입양 인식
2. 가구·연령대별 평균 순자산
3. 목회자 은퇴 후 주일 예배 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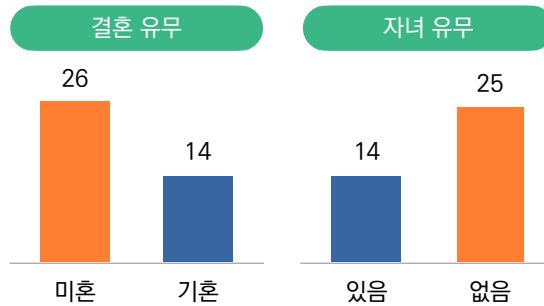
## [한국인의 입양 인식] 국민 5명 중 1명꼴, 자녀 입양 의향 있다!

- 우리 국민의 입양 관련 인식을 최근 발표된 '2025 입양인식조사'(한국리서치)를 통해 살펴본다.
- 먼저 자녀입양 의향을 물은 결과, 국민 5명 중 1명꼴(18%)로 향후 자녀를 입양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기혼(14%)보다는 미혼(26%), 유자녀(14%)인 경우보다 자녀가 없는 사람(25%)의 입양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자녀입양 의향 (일반국민)



[그림] 응답자 특성별 '자녀입양 의향 있음' 비율 (일반국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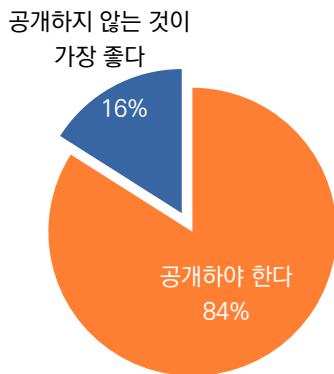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2025 입양인식조사] 자녀입양에 대한 '나'와 '우리사회' 인식 격차, 입양 의향, 입양 부모 적합성(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5.07.25.~07.29.), 2025.10.29.

## 국민 대부분, 입양 자녀에게 입양 사실 공개해야 한다!

- 입양 자녀에게 입양 사실을 공개해야 하는지를 물었을 때, 국민 10명 중 8명 이상(84%)이 '공개해야 한다'(84%)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공개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는 16%에 그쳤다.

[그림] 입양 자녀에게 입양 사실을 공개해야 하는지 여부 (일반국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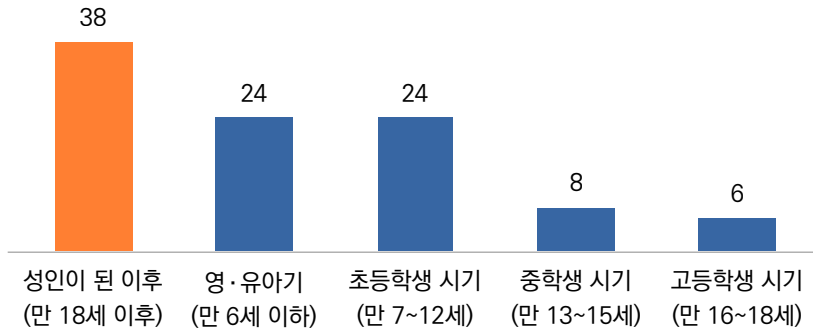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2025 입양인식조사] 자녀입양에 대한 '나'와 '우리사회' 인식 격차, 입양 의향, 입양 부모 적합성(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5.07.25.~07.29.), 2025.10.29.

## 입양한 자녀에게 입양 사실 공개한다면, ‘성인이 된 이후’(38%)가 가장 적당!

- 입양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입양 사실 공개 시점이 언제가 적당한지 물었다. 그 결과, ‘성인이 된 이후’(38%)를 꼽은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영·유아기’(24%)와 ‘초등학생 시기’(24%)였고, ‘중학생 시기’(8%)와 ‘고등학생 시기’(6%)는 한 자릿수에 그쳤다.

[그림] 입양 사실 공개 시점\* (입양 사실 공개해야 한다고 응답한 자, %)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2025 입양인식조사] 자녀입양에 대한 ‘나’와 ‘우리사회’ 인식 격차, 입양 의향, 입양 부모 적합성(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5.07.25.~07.29.), 2025.10.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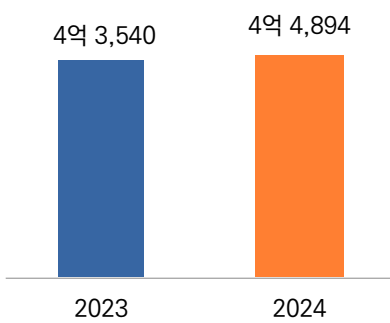
\*입양 사실 공개해야 한다고 응답한 자 100% 기준으로 환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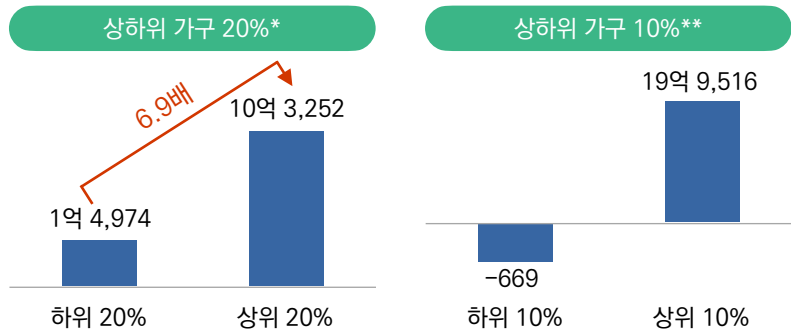
## [가구·연령대별 평균 순자산]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순자산, 4억 5천가량!

- 우리나라 국민들의 순자산(총 재산 중에서 부채를 뺀 금액)은 얼마나 될까? 통계청의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순자산은 2024년 기준 4억 4,894만 원으로 조사됐다. 2023년 순자산(4억 3,540만 원)과 비교하면 약 3% 증가한 수치다.
- 한편 상위 20%(소득 5분위)와 하위 20%(소득 1분위) 가구의 평균 순자산을 비교했을 때, 상위 20%는 10억 3,252만 원으로 하위 20%(1억 4,974만 원)와 7배 정도 큰 차이를 보였고, 상위 10%와 하위 10%는 각각 -669만 원, 19억 9,516만 원으로 심각한 양극화 수준을 드러냈다.

[그림] 가구당 평균 순자산 (만 원)\*



[그림] 가구 평균 순자산 (2024, 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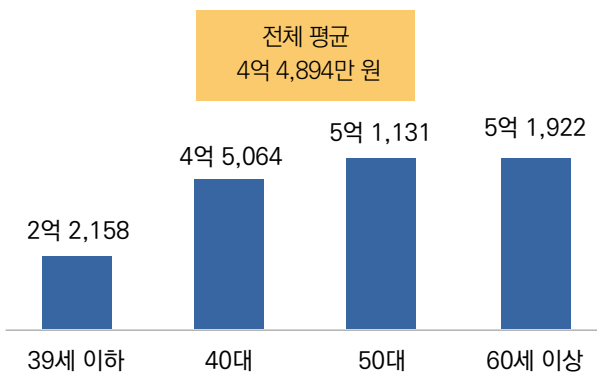
\*출처 : 통계청 보도자료,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2024.12.09.

\*\*출처 : 국가데이터처,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2024. 순자산 10분위별 가구의 순자산 점유율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AAD03&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AAD03&conn_path=I2))

## 60세 이상 가구 순자산, 5억 1,922만 원으로 가장 높아!

- 가구주 연령대별 순자산을 보면 '60세 이상'이 5억 1,922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5억 1,131만 원, '40대' 4억 5,064만 원, '39세 이하' 2억 2,158만 원 순이었다.

[그림] 가구주 연령대별 순자산 (2024, 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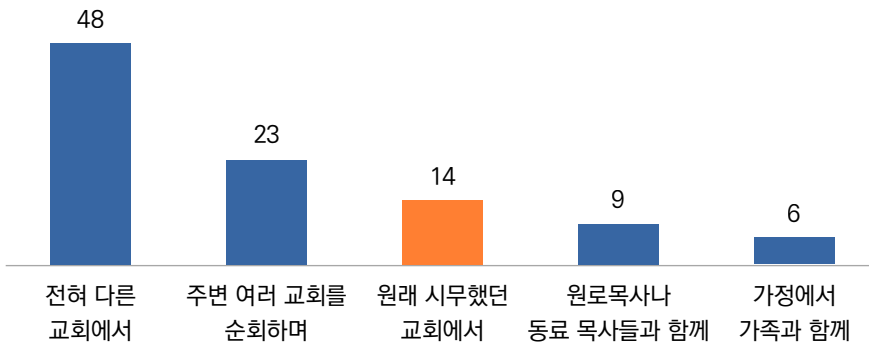
※출처 : 통계청 보도자료,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2024.12.09.



## [목회자 은퇴 후 주일 예배 처소] 목회자 86%, 은퇴 후 현 시무교회 떠나 예배 드릴 계획!

- 목회데이터연구소 홈페이지 이용자 중 목사님을 대상으로 '은퇴 후 주일 예배 처소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를 최근 넘버즈 poll을 통해 발표했는데, 이를 살펴본다.
- '전혀 다른 교회에서' 드리고 싶다는 의견이 절반 정도(48%)로 가장 많았으며, '주변 여러 교회를 순회하며' 예배를 드리겠다는 응답도 23%였다.
- 반면 '원래 시무했던 교회에서'를 선택한 비율은 14%에 불과해, 대다수인 86%의 목회자는 은퇴 후 현 시무교회와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경향을 드러냈다.

[그림] 은퇴 후 주일 예배 처소 (목사, %)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제118차 넘버즈 poll 결과, 2025.10.27.  
Note) 목회데이터연구소 홈페이지 이용자 대상 조사로 해석에 유의

#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639호 \(2025년 10월 5주\)](#)

- 대법관 증원, 특검 수사, 주식 시장 관련 인식 (10월 통합 포함)

[전국지표조사 리포트 제167호 \(2025년 10월 5주\)](#)

- 국정운영평가 평가, 물가상승 부담, 부동산 가격 심리 등

## 사회 일반

[10여년새 심화된 사회 불평등, 소득 아닌 자산 격차가 키웠다](#)

중앙일보\_2025.10.29.

[출생 14개월, 혼인 17개월째 ↑ 1~8월 출생아 증가율 18년 만에 최대](#)

조선일보\_2025.10.30.

[“아프면 서울로” 10명중 4명은 원정 진료](#)

동아일보\_2025.11.3.

[하룻밤 32번 ‘112 거짓신고’… 허탕친 경찰 “진짜 신고 놓칠라”](#)

국민일보\_2025.11.3.

[“나의 가장 큰 정서적 지지자는 배우자” 59.6%](#)

문화일보\_2025.10.30.

[대학 정원, 수도권 11% 줄 때 지방은 30% 줄었다…“지역소멸 가속 우려”](#)

중앙일보\_2025.10.30.

[\[2025 입양인식조사\] 자녀입양에 대한 ‘나’와 ‘우리 사회’ 인식 격차, 입양 의향, 입양 부모 적합성](#)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_2025.10.29.

[삶의 마지막, 어떻게 맞이하고 싶으신가요 \(안락사/연명치료\)](#)

케이스탯리서치\_2025.10.30.

## 경제 · 기업

[은퇴 후 소득 공백, 종신보험금 미리 받아 메운다](#)

동아일보\_2025.10.30.

["돈 잃더라도 투자"...1억 넘게 모은 'MZ 자산가' 확 늘었다](#)

중앙일보\_2025.11.2.

[로봇 도입 후 고용률, 45세 미만 늘고 중장년층 줄었다](#)

중앙일보\_2025.11.3.

[주 52시간 넘게 일하는 직장인, 과반이 ‘공짜·혈값 초과근무’](#)

경향신문\_2025.11.2.

## 기독교 · 종교

[중세교회와 닮은 한국교회...“종교개혁 정신 되찾자”](#)

데일리굿뉴스\_2025.10.30.

# 목회데이터연구소

##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협력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지앤컴리서치

##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원로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원장 | 자문위원장(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민선영, 유영민, 김찬술, 한미경

## MOU 기관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주)디엔텍세븐컨설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정책연구소, 라잇나우미디어, 문화선교연구원,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아미션,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치움, 크리스찬타임스, 퓨처처치연구소(FCI),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IFCJ 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KICE),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사)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한일연합선교회

해외 : 미주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캄보디아기독교연구소

## 후원 방법 (국내)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 하나은행 203-910046-18604 (목회데이터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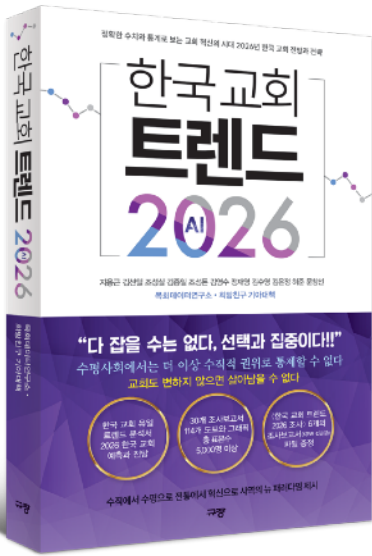
## 후원 방법 (해외)

외국에서 페이팔을 통해 후원해주실 수 있습니다.



## 후원 명단 안내

후원자 명단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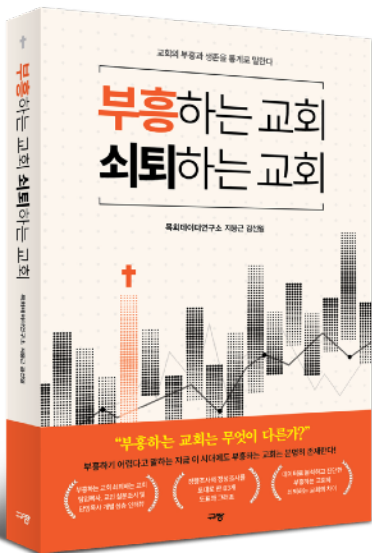
## 「한국교회 트렌드 2026」 책 구입 안내

목회데이터연구소와 기아대책이 공동으로 준비한 책이 출간됐습니다. 2026년도 예상되는 한국교회 이슈와 트렌드 10가지를 주제로 선정하였는데, 이 책이 내년도 목회 전략을 수립하는데 올바른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책 구입 문의 : 02-322-0726, 유명민 간사)

책 구입 안내

책 소개 영상



##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책 구입 안내

목회데이터연구소는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를 출간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의 담임목사, 성도를 총 1,320명 조사하여 각각의 특징을 통계적으로 규명하였습니다.

(책 구입 문의 : 02-322-0726, 유명민 간사)

책 구입 안내

책 소개 영상